

# 한국과 일본 설계문화에 대한 단상 (斷想)



마 성 호 |

(주)경화엔지니어링 수자원부 전문  
shmah01@naver.com

출근을 하면 사무실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 금주의 명언이 적혀있는데 이번주는 “나쁜소문은 천리를 가고 좋은 소문은 집턱을 넘기가 어렵다”라고 적혀있다. 씩씩한 웃음과 함께 생각에 잠겨본다. 우리는 상대를 비판하고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나쁜 소문이든, 좋은 소문이든, 다같이 논의되고 판단해야 자신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본인은 일본의 와세다(早稻田) 및 주오(中央)대학교에서 학업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마세(間瀬)컨설턴트에서 하천부분의 설계업무에 4년간 근무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설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재미나면서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을 토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학술연구용역 및 설계업무를 종사하면서 느

낀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며, 기술된 내용은 본인의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전체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한다.

## ○ 설계를 임하는 기술자의 마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부 러시아를 이 어주는 축으로서 대륙의 습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리적으로 나라전체가 바다로 에워쌓여 있어 섬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집구조가 적의 침입이 어렵고 방어가 용이하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도주하기 좋은 환경을 택한다. 반면 일본은 적으로부터 숨기좋은 집 구조를 가지며 만약의 경우 적에게 잡히면 더이상의 도주로가 없어 극단적인 방법(할복)을 택한다.

이러한 지형적 지리적특성이 서로 다른 성격의 국가가 되었지만...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관서지방(오사카등)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서 역사적으로 약체였던 백제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백제인이 들어가서 강대부족으로 정착한 지역으로 사투리 및 지역주민 특성이 우리나라 전라도와 많이 흡사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상도는 늘 일본의 침략 및 외교경로가 되었던 과거를 볼 때 일본어는 경상도의 사

투리 발음과 흡사한 점이 매우 많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 비슷한 점이 매우 많은 나라여서 가까우면서 먼 이웃나라라고 하는가 보다.

설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자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하여 다소 관대하며 일사천리로 빨리 끝내고 여유의 시간을 가지려 애쓴다. 일의 내용에는 차후 자기 면피용을 어디엔가 깔아 놓는 경향이 있다 (자기생존주의).

반면 일본은 느슨하게 일하면서 타인 및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는 공동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공동자폭주의).

### ○ 기술자의 업무 능력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가 40세 전후되면 실질적인 업무에서 소홀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영업위주의 업무로 바뀌면서 급격히 기술적 조루현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설계보고서는 대리, 과장에 의해 작성되는 경향이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하여 타보고서 성과품의 복사본 수준으로 타락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40세에서 45세에 이르면 지속적으로 기술자로서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 위주의 일을 할 것인지? 를 본인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영업직을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므로 별도의 영업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설계종사자가 고령이 되어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의 특색있는 보고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고집과 편견이 동반된 객관성이 결여된 자기만의 보고서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 ○ 설계업무에 대한 발주처의 대응태도

우리나라에서 설계업무는 설계자가 모든 업무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나 주된 결정권은 없다. 또한 상용화된 메뉴얼이 적어 사례 및 판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향은 숙달된 설계자에 의해 단기간의 업무 수행가능하나 창의적이고 참신한 기술적용이 어렵고, 발주처에 따라 용역수행의 난이도가 결정된다.

일본에서 설계업무는 발주처의 지역담당자가 모든 내용을 스스로 습득하고 파악하여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발주처의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설계자가 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상위 업무보고를 발주처의 지역담당자가 모두 수행하여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설득력은 높일수 있으나, 수행 설계사의 빈번한 발주처 지역담당자에게 업무보고 및 협의가 과다하게 많아지면서 설계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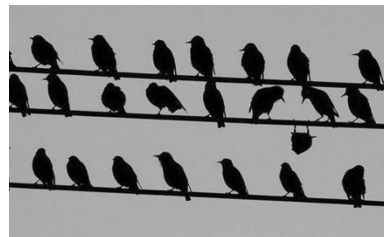
### ○ 설계업무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 평가

- 한국(인맥주의)



설계사의 내부나 발주처에서 학연, 지연, 혈연은 급속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질적인 우수성보다 인간미에 치우치 경향이 있다.

- 일본(왕따주의)



설계사나 발주처에서 개인의 능력은 모든 인맥관계를 뛰어 넘을 수 있으나 개인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허드렛일과 급여에 대한 불만을 발산할 수 없으며 불만을 가질 경우 소위 이지메(왕따)로 개인을 파멸로 보내는 경향이 있다.

### ○ 자체 기술개발과 자기개발

우리나라는 설계나 분석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회사는 극히 보기 힘들다.

물론 상업용으로 개발된 국산 소프트웨어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일단 미국에서 사용된 것이면 인정하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다. 물론 미국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해당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사에서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다. 거의 한달 가까이 교육을 받는다. 외국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일본식으로 재코딩 해서라도 자기네 것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다.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HEC-RAS도 일본에서는 사용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어느 면에서는 너무 심할 정도로 자기화하려는 집착으로 보인다.

### ○ 용역회사 차원에서의 연구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차원의 용역은 회사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는 국가연구사업이 PQ에 가산점 처리가 된다고 하여, 마지못해 몇몇 연구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연구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200개가 넘는 용역사중 엄밀한 의미에서 용역사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회사는 불과 1~2개 밖에 없고 그나마 참여하는 것도 아주 규모

가 작은 회사에서 하는 것 같다.

일본에서도 대학교 교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가 종종 있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 출신의 석 박사를 지속적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고 수행하고 있는 연구테마를 보면 산학이 상호 자기 장점을 살려 상부상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용역회사나 대학에서는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본의 연구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형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기술심의위원회

우리나라 각종 심의장에 가서 보면 다들 느끼겠지만, 뭐가 면피용으로 하는 듯한 인상 지울 수 없다. 심의용 보고서 혹은 자료 등을 자세히 보고 오시는 분도 몇 안 되는 것 같다. 물론 시간적인 문제와 비용 문제가 같이 수반되니 뭐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에서도 설계/시공 등에 관련하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심의장에 가면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우가 굉장하다. 너무 형식적이라 할 만큼.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심의위원이 알고 있기에 적당히 숙지해서 심의하는 분이 많지 않는 것 같다.

### ○ 맺은말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후지TV에서 북한의 지역 및 주민을 만나고 촬영했던 기자는 “아마도 북한의 주민이 일본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민은 어느 나라의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

기가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우리나라와 일본 혹은 다른 나라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사람보다는 일본사람이 더 행복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무언가는 자신에게 조금은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